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5, May 31 (2023), pp.389-399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5.32

A Theoretical Discussion with Justice on the Duty and Reward of National Athletes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Jae Sik Yang[1]

양재식[1]

[1] *Lecturer, Leisure Sport Department, Seowon University, Korea, 4774495@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justification and validity of the duty and reward of national athletes of Korea, with the theory of justice as the minimum system of the social value and belief shared in the social community. For that, this study categorized the arguments for the duty and reward of national athletes from online newspaper articles, SNS contents, and their replies at first, found out criteria for theoretical discussions from the justice theory of Rawls secondly, and finally, discussed and analyzed the justification and validity of categorized arguments with the criteria of the justic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perspective of liberal justice by Rawls, a position as a national athletes had the corresponding public duty by a fair contract with the society, even if the position was given as the right from personal abilities. Second, considering the reciprocity of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national athletes and the status of the national athletes were obtained through a fair selection process, public rewards for the national athletes were valid. Third, the stronger demand for the higher moral duty of national athletes were a justified claim as a return of their rewards from the society.

Keywords: Theory of Justice, National Athletes, Duty, Reward

요약: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의 원인이 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의 문제에 대하여 정의론을 토대로 그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국가대표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추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는 개인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위치라 할지라도 사회라는 집합체에 대해 공정한 계약으로서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된다. 둘째, 국가대표선수가 만들어 내는 이익의 호혜성과 공정한 선발 과정을 고려했을 때,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공공의 보상은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셋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핵심어: 정의론, 국가대표선수, 책임, 보상

Received: January 11, 2023; 1st Review Result: February 25, 2023; 2nd Review Result: March 21, 2023
Accepted: April 30, 2023

Copyright ⓒ 2023 KCTRS

1. 서론

민족주의적 논리 하에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이든, 혹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국민의 단결과 화합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든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경쟁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열광과 환호, 또는 분노와 좌절을 아낌없이 뿜어내는 합법적인 배출구가 된다[1]. 이때, 국가 간의 스포츠 경기를 직접 치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가대표선수라고 부른다. 이 국가대표선수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동질감을 통해 대중의 대리자가 되어 다른 나라의 대표와 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자신의 애착을 투사한 대중들의 집단적 심리에서 비롯된 분노와 좌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열광과 환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1][2].

덕분에 대중을 대신하여 국가 간의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은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1]. 일상생활에서는 높은 도덕성과 절제된 생활, 근면하고 성실한 훈련 태도 등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기에 나아가서는 정정당당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호쾌하게 상대를 제압하여야 한다. 그 결과 멋진 승리를 쟁취한다면 막대한 포상과 더불어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하여 대중의 칭송을 한몸에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 경기력에 대한 비난에서 시작하여 평소의 생활 및 훈련 태도에 대한 지적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훈련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의 엄청난 혜택과 국민의 성원을 무시한 파렴치한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대표선수라는 자리는 책임감과 열정에 더불어 뛰어난 경기력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에 적합하다면 많은 칭송과 명예가 따른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수한 비난에 직면해야 한다[1].

그렇다면 대중이 국가대표선수에게 이러한 도덕성과 의무를 수반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당위성 혹은 타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가,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기까지 성장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대중의 지원을 받아서인가. 국민들의 칭찬과 막대한 일시불의 포상금을 한몸에 받으며 일약 스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가, 혹은 병역 특례를 통해 청춘의 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이거나 본인이 직업으로 선택한 운동이란 분야에서 특출한 자로서 가지는 자랑스러운 명예이기 때문인가.

또한, 국가대표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을 때, 여러 가지 칭찬과 명예 및 혜택을 동반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 혹은 타당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인가, 국가와 대중의 지원에 적절하게 보답했기 때문인가. 혹은 대중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국가의 이미지를 높였기 때문인가, 훈련받는 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보상인 것인가.

이상의 물음에 대한 감정적인 혹은 경제적인 관점의 대답은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감정적인 관점의 대답은 몇몇과 공유할 수 있는 동질감은 있으나 그 외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가 부족하며, 경제적인 관점의 대답은 대표선수들의 노력을 금전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3].

더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이 가지는 책임과 보상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하고 합의 가능한 해답의 부재는 국제경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대중의 관심과 칭찬, 비난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대표선수가 가지는 책임과 보상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그 문제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논리를 제시하는 작업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Copyright ⓒ 2023 KCTRS

소모적인 논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대표선수의 책임에 대한 당위성과 보상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는 이들의 성과와 노력 및 그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보상이 일반 대중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가지는 것인지, 이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일반 대중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이지 등을 포괄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다[4]. 이러한 가치판단과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는 “변론을 통한 정당화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한 시대, 한 공동체 사회에서 이성적 인간들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가치와 신념체계”이다[4].

한 시대의 한 공동체 사회에서 공유되는 최소한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간결하게 부르는 명칭이 바로 정의이다. “정의란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 가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이자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

따라서, 정의에 대한 이론 즉, 정의론의 관점에서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당위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스포츠 분야의 당위성과 타당성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을 구하는 선행연구는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4]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의 원인이 되는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에 공유되는 최소한의 가치와 신념체계로서의 정의론을 토대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선수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의 실질적인 해답을 탐색할 수 있으며, 스포츠 현장 등에서의 가치 판단적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론을 활용한 접근이라는 연구 관점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당위성 및 타당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에 공유되는 최소한의 가치와 신념체계로서의 정의론을 기준으로 추론을 통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그 이론적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 유형화, 둘째, 정의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한 추론 기준의 도출, 셋째, 유형화된 문제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 추론, 넷째, 삼각 검증을 통한 추론의 타당성 확보의 네 단계를 거쳐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2.1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의 유형화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논란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그 공통점을 근거로 논란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편향된 문제를 설정하는 오류를 피하는 길이 될 것이다[6].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선수, 책임, 보상 등의 주제어 검색을 통해 국가대표선수와 관련된 논란을 담고 있는 포털 미디어와 SNS 상의 신문기사나 게시물과 그 댓글을 수집하였다. 여론이나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넷상의 게시물 및 그 댓글은 대중의 다양한 감정과 의견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1].

Copyright ⓒ 2023 KCTRS

수집된 기사, 게시물, 댓글은 연구자와 사회학 전문가 1인, 언어학 전문가 1인의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각각의 내용에 제시된 국가대표선수와 관련된 논란을 개별적 문장으로 구체화한 뒤,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유형화하였다.

2.2 정의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한 추론 기준의 도출

정의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문제의 해답이 공동체의 인정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한 시대, 한 공동체 사회에서 이성적 인간들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5]. 현대 한국 사회의 사상적 주류로는 가족집단주의에 기반 한 공동체주의적 경향,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내는 유교적 전통의 경향, 쾌락적 자유주의의 반향으로 추구되는 자유주의적 정의의 이론[4][7]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사상적 주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의론으로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대표하는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공동체주의적 경향을 대표하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유교적 도덕성을 대표하는 맹자의 의와 순자의 예 등이 있다[4]. 이 중에서 유교적 도덕성에 관한 정의론적 관점은 이상향을 향한 지침이나 방법론에 가까우며,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은 공공의 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 의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의적 관점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내용분석하여 앞서 유형화한 국가대표선수 관련 논란에 적용이 가능한 이론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2.3 유형화된 문제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의 추론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관점의 추론은 그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이론적 타당성의 개념은 "현상에 적용된 개념들에 대한 타당성과 개념들 간에 가정된 관계에 대한 타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된 각각의 논란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를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각 견해를 포괄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편협된 시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론의 일관된 안정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롤즈의 정의론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의 책임과 보상 문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2.4 삼각 검증을 통한 추론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에서 추론의 과정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됨으로써 그 합리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이러한 기술적 타당성의 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이외에 스포츠 사회학자 1인과 철학자 1인으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추론의 결과물을 삼각 검증 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강화[6]하였다.

3.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의 유형화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논란에 대한 유형화 결과의 첫 번째는 국가대표선수라는

Copyright ⓒ 2023 KCTRS

지위의 공공성 여부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국가대표라는 지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인 지위라 말하고 있다[9][10]. 반면 국가대표선수의 지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획득한 개인적 지위라고 말하고 있다[11].

그러나, 국가대표선수 지위의 공·사 여부는 사실관계 혹은 제도적 장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대표의 지위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인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2]. 민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선발된 스포츠 선수일 뿐이며, 그들의 훈련 과정과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과 혜택이 주어질 뿐이기 때문이다[12].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 대회에 참여하고 그 경기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공공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실패하거나 중도탈락 과정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대표의 지위를 잃고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것도 그 판단을 어렵게 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가 공적인 책무로서의 책임을 갖는 자리인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권리를 갖는 자리인지 즉, 책임과 권리의 여부로 지위의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행위와 공공의 체계를 책임지는 행위는 사회적 책무로서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의 두 번째 유형화 결과는 보상의 문제이다. 이때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적 차원의 보상이 아닌 공적 차원의 보상, 즉 국가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연금 혹은 병역 특례 등의 공공재를 보상으로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업적에 대한 공공차원의 보상은 형평성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11]. 나아가 같은 공공재를 활용한 보상의 경우에도 성과의 크기나 종목의 인기 여부 등에 따라서도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나 여부에 대한 형평성을 전제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15].

이 유형의 논란은 언급된 국가대표 지위의 공·사 영역 구분, 즉 책임과 권리의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공재를 이용한 보상도 일견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개인적 권리인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4]. 따라서 국가대표선수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논란은 권리로서의 지위일 경우에도 공공의 재화를 이용한 보상이 타당한 것인지, 성과에 따른 보상의 크기 차이가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표 1] 국가대표 선수 관련 논란의 유형

[Table 1] Types of Controversies over National Athletes

유 형	내 용		
국가대표 지위의 공공성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공적 지위	VS.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적 지위
공적 보상의 타당성	사회적 이익에 따른 공적 보상	VS.	사적 이익에 따른 공적 보상의 불합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의 타당성	VS.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의 부적절성
도덕적 책임의 당위성	사회적 지지에 따른 당위적 책임	VS.	개인적 지위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의 유형화 결과 마지막은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큰 도덕성의 문제이다. 혹자는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을 대표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응원을 얻는 만큼 보다 큰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10]. 그리고 그러한 도덕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책임이 가혹한 처사라고

Copyright ⓒ 2023 KCTRS

주장하기도 한다[16]. 물론 이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국가대표선수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 역시 이들이 공공의 책임을 가지느냐 개인적 차원의 권리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국가대표 선수의 책임과 보상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유형화한 결과는 위 [표 1]과 같다.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에 대한 관련 자료의 내용분석과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대표선수는 공공의 책임을 지는 지위인가 개인적 권리를 지니는 지위인가? 둘째, 국가대표선수에게 주어지는 공적인 보상은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성과에 따른 차등은 타당한 것인가, 셋째, 국가대표선수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큰 도덕적 책임 요구는 타당한 것인가의 세 가지로 주요 논란을 유형화하였다.

4.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의론적 추론 기준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권리 또는 책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타당성과 당위성의 추론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롤즈의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5][7]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이를 자신의 의도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체가 된다[17]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서로의 평등한 자유 실현을 위하여 서로 공평하게 제한받는다[18]. 이것이 롤즈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이자 책임과 권리에 대한 언급의 핵심이다.

특히, 사회계약론자인 칸트의 이론을 잇는 롤즈[4]의 관점에서 권리란 “권리 보유자의 유익함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행 책임”으로서의 책임, 즉,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책무로서의 책임을 요구한다[19]. 동시에 이러한 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은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책임과 권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20]. 그리고 이 책임과 권리는 상대방보다 원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사회 내의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된 차등 분배와 사회적 이익 생산의 책임, 그 지위에 대한 기회의 공평성을 전제하게 된다[5][14][21].

더하여, 위와 같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롤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의 실행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협조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18][21]. 또한 “그 이익의 혜택은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앞선 논의한 권리에 다르는 책임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주장하였다[10][21]. 요컨대 책임이 따르는 능력의 정당한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그 이익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까지 도움이 될 경우, 그 능력의 행사자에게 추가적 이익으로 주어질 수 있으며, 사회의 여타 구성원이 그 이익의 배분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익을 분배할 책임 역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롤즈의 이론을 정리하면 첫째,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책임을 전제로 성립한다. 권리를 가지는 개인은 타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책임을 가지는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지닌다. 둘째, 상대적으로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생산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조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책임도 지게

Copyright ⓒ 2023 KCTRS

된다.

5. 국가대표선수의 책임, 보상 그리고 도덕성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란의 첫 번째 유형을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가 개인적 차원의 이익 창출을 위한 권리의 위치인지 사회·국가적 차원의 공공성을 띠는 사회적 책임의 위치 인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자유를 강조하는 롤즈의 관점[5]에서는 이 중, 국가대표선수의 지위를 개인적 차원의 이익 창출을 위한 권리의 위치로 보는 시각에서 우선적인 타당성과 당위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가대표선수의 지위를 개인적 이익 창출을 위한 권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개인의 이익을 생산한다고 보았다[11]. 국가대표선수로서 별도의 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훈련비, 성과에 대한 포상금 등의 혜택을 받고 선수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익 창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는 롤즈마저도 그 개인적 권리의 사회적 연계성을 설파하였다[21]. 즉,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생성되며, 반대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그 바탕을 제공하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본 것이다. 롤즈의 관점에서 사회는 공정한 계약에서 발생하고 그 구성원인 개인은 공정한 계약에 따르는 의무 이외에도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8][20].

이를 통해 볼 때,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가 개인적 이익 생산을 위한 권리라 할지라도 이 권리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과의 공정한 계약을 기반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는 이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협조자이자 공정한 계약의 상대방인 다른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결국,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는 개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볼지라도 능력에 의한 이익 생산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공적인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다루어야 할 논란의 유형은 국가대표선수들에게 공적인 재화로 보상을 주는 것과 그 보상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이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이 그 대가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롤즈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책임은 이에 상응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14]. 특히 재화의 분배에 대해 추가적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분배의 정의로 추구하는 롤즈의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 된다. 다만, 공공의 재화로서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분배 받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이 만들어 내는 이익이 사회의 모두,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에 도달할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14][21]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국가대표선수가 만들어내는 이익의 호혜성과 공공성, 최소 수혜자에 대한 이익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4]. 또한,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기회와 과정 역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다[5]. 흔히 말하는 국뽕에 취한 대중의 반응이나, 불공평한 국가대표선수선발에 대한 대중의 분노[22]만 보더라도 이는 쉽게 반증이 된다. 따라서 국가대표선수들이 공적인 재화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들이 생산하는 이익에 수반되는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대표선수로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혹은 비인기 종목을 한다는

Copyright ⓒ 2023 KCTRS

이유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롤즈는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1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표선수로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그만큼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역시, 그 종목이 만들어내는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이 타당하다는 관점에 도달한다.

다만,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합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특정한 상황에 처한 구성원의 일방적 불리함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을 의미하는 것임을[23] 고려할 때,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어느 수준의 보상과 지원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시 국가대표선수로서 공정한 차등 분배의 조건인 사회적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이유가 된다.

마지막 유형화된 논란은 국가대표선수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큰 도덕적 책임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승준과 권오륜[16]은 원초적 상태인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스포츠 스타가 과도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도덕적 책임의 가혹함만을 고려한 견해라 판단된다. 국가대표선수들이 가지는 보다 많은 도덕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이 얻는 추가적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도덕적 책임은 계약의 상대방, 즉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18]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대표선수는 자신들의 능력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그 보상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회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도덕적 책임의 부과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계약의 공정함 위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 롤즈의 정의[18]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국가대표 선수의 책임과 보상 및 도덕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가대표 선수의 책임, 보상, 도덕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Table 2] Validities of National Atheltes` Duty, Reward and Morality

유 형	내 용
국가대표 지위의 공공성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공적 지위 → 타당한 공적 지위와 책임을 지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적 지위 → 사회계약 관점에서의 공적 책임이 발생함
공적 보상의 타당성	사회적 이익에 따른 공적 보상 → 공공의 이익 생산에 따른 공적 보상은 타당함
	사적 이익에 따른 공적 보상의 불합리 → 추가 이익의 공공성에 따라 공적 보상은 타당함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의 타당성 → 사회적 계약의 원리에 따라 차등 보상은 타당함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의 부적절성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함
도덕적 책임의 당위성	사회적 지지에 따른 당위적 책임 → 공적인 책임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은 타당함
	개인적 지위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 추가 이익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의 부과는 타당함

Copyright ⓒ 2023 KCTRS

6. 결론

국가대표선수들이 가지는 책임과 보상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하고 합의 가능한 해답의 부재는 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이로 인한 부작용, 대중의 관심과 분노, 여러 비난과 요구에 대한 일시적 대응책 마련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대표선수가 가지는 책임과 보상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방법이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의 원인이 되는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에 공유되는 최소한의 가치와 신념체계로서의 정의론을 토대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주제어 검색을 통해 수집한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여러 논란을 유형화하였고, 둘째,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의론적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이를 토대로 국가대표선수의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란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는 개인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 행사의 위치라 할지라도 사회라는 집합체에 대한 공정한 계약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의 책임을 당연히 지니게 된다. 둘째, 국가대표선수가 만들어내는 이익의 호혜성과 공공성, 국가대표선수라는 지위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공공의 보상은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 혹은 종목의 인기도에 따른 보상의 상대적 차이 역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타당하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국가대표선수들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란들은 본 연구와 같은 정의론적 기준에 따른 이론적 고찰 이외에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와 정서적 공감대 등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설문 및 여론 조사 등의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 주제가 되었던 국가대표 선수 관련 보상과 책임에 대한 논란과 그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은 대한민국 사회라는 지리적·문화적 경계 속에서 수행되었다. 추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혹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와 그 결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깊은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997).

Copyright ⓒ 2023 KCTRS

References

[1] J. K. Lee, K. J. Lee, J. S. Yang, Analysis of Emotions of Anti-Korea and Anti-Japan in International Soccer Games of Korea vs. Jap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9), Vol.17, No.2, pp.463-473.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9.17.2.463

[2] B. C. Kim, S. Y. Kwon Sporting Nationalism Reconsidered: Globalization, Sport, and Corporate Nationalism,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07), Vol.18, No.1, pp.75-85.
DOI: http://dx.doi.org/10.24985/kjss.2007.18.1.75

[3] J. M. Jeon,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Persuasion, Korean Speech and Discourse Analysis, (2005), Vol.8, pp.281-303.
Available from: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617567

[4] J. K. Lee, J. S. Yang, Theoretical Perspectives of Justice on the Military Service Privileges of Korean Athlet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15), Vol.54, No.6, pp.63-79.
Available from: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715456

[5] J. S. Yang, Theoretical Perspectives of Justice on the Military Service Privileges of Korean Athlet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6]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cademy Press, (2012)

[7] K. S. Hwang, The philosophical basis of social justice, Philosophy and reality, (2013)

[8] J. H. Na,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idity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06), Vol.19, No.1, pp.265-283.
Available from: https://ebook.kyobobook.co.kr/dig/pnd/scholardetail/product?cmdtcode=4010019951701

[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2015&code=11171348&cp=du, Aug 1 (2021)

[10] https://www.etoday.co.kr/news/view/1378472, Aug 1 (2021)

[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0343, Aug 1 (2021)

[12] T. R. Chung, T. J. Chon,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in Korea Territory hosted by Korean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019), Vol.24, No.3, pp.1-14.
DOI: http://dx.doi.org/10.31308/KSSM.24.3.1

[13] M. R.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Expectation, Sense of Psychological Crisis and Re-socialization among the National Representative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16), No.66, pp.229-241.
DOI: http://dx.doi.org/10.51979/KSSLS.2016.11.66.229

[14] B. C. Lee, Critical Complementation of 'Rawls' Theory of Fiduciary Obligations' and A General Model of 'Rights-Duties/Obligations Relations',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2005), Vol.11, No.2, pp.203-224.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20198

[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4777, Aug 1 (2021)

[16] S. J. Lee, O. R. Kwon, Study on Legitimacy of Sports Star's Deviance and Punishment. Philosophy of Movement, (2017), Vol.25, No.4, pp.117-129.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19754

[17]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8] D. I. Kim, The Principle of Fairness: Its Theory and Moral Foundations,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2012), Vol.18, No.1, pp.77-102.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54999

[19] B. C. Lee, A Study on the Western Liberal Conceptual System of Rights-Duties/Obligation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7), Vol.41, No.4, pp.47-68.
DOI: http://dx.doi.org/10.18854/kpsr.2007.41.4.003

Copyright ⓒ 2023 KCTRS

[20] L. C. Becker, B. C. Becker, Encyclopedia of Ethics, Garland Publishing Inc., (1992)

[21]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Havard Press, (1999)

[22] http://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47, Aug 1 (2021)

[23] S. G. Yeom, Liberal Justice – Criticism on Sandel's Justice Discourse, Chosun University press, (2012)

Copyright ⓒ 2023 KCTRS